

근현대 농민소설과 물의 재현

윤영옥(전북대)

< 목 차 >

- | | |
|--------------------|--------------------------|
| 1. 물과 근대 | 3. 식민적 권력제도로서의 물의 관리와 통제 |
| 2. 풍경과 사회적 매개로서의 물 | 4. 식민지 시기 물관리의 사회문화적 의미망 |

1. 물과 근대

소설에서 물에 대한 표현은 시대와 사회, 문화, 작가의식에 따라 표상 작용을 달리하고 있다. 물의 표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코드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민소설에 나타나는 물의 재현은 ‘표상 시스템(representational system)’¹⁾의 산물이며, 물을 매개로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의 산물이다. 농민소설들은 물을 농민의 삶과 관련된 사건들 속에서 포착하여 그 위치를 설정하고 구성하며 재현하고 있는데, 물을 인식하고 표상하는 방식은 물과 관련된 농민을 보는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 농민 소설에서 농민들의 삶의 현실과 사회적 위상은 부분

1) 표상 시스템이란 표상을 떠받치는 코드와 그 사회적인 유통과 순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李孝德,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19면).

적으로 물을 통해 서로를 조건 짓고 산출하는 관계의 편제로 재구성된다. 근현대 농민소설에서 나타나는 물의 재현 방식은 농민 현실에 대한 근대적인 표상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소설이 물이라는 소재에 접근할 때, 그것의 개인적 이용과 더불어 사회적 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학 작품 속에 재현된 물은 표상된 물로서, 인간과 자연의 관련, 그리고 인간의 자연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개물이다.

일찍이 미첼은 풍경화를 ‘문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매개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풍경화 자체가 이미 하나의 표상이 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표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²⁾ 미첼에 따르면, 농민소설에 재현된 물의 풍경 역시 특정한 표상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된 일종의 매개물로 이해할 수 있다.

풍경이란, 어떠한 의미로 취하든지 간에, 어김없이 하나의 매개물이다. 그것은 언어나 물감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의미 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진통 속에, 혹은 의미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끌어대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하거나 할 수 있는 상징 형식들의 집합체 속에 끼어들어간 하나의 물질적인 ‘도구’이다.³⁾

농민소설에서 물의 표상은 때로는 내면적 경험의 일부로, 때로는 공간적 장소의 일부로, 때로는 사회적 관계로 재현된다. 위와 같이 문학적 재현과정에서 물에 접근하는 태도의 차이는 물과 관련된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한국 근현대농민소설에서 물을 다루는 접근 방식은 물에 대한 표상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물과 농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농민소설에서 물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변동과 작가의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W. J. T. Mitchell ed., 「제국의 풍경」, *Landscape and Pow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이기우 편역,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 — A Reader』, 한국문화사, 1998, 461-509면.

3) 윗글, 480면.

1.1. 내면적 경험으로서의 물: 자연의 지각

먼저 물과 내면적 경험의 관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근현대 작품에서 물이 등장할 때는, 기후와 날씨의 지각단서인 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각과 촉각에 의해 인식된다. 청각과 촉각이라는 개인의 감각적 경험에 침윤되어 있는 경우, 물은 개인의 내면적인 경험에 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물과 사회적 삶의 입체적 연결은 미약하다. 다음은 심훈의 『상록수』의 일 부분이다.

‘뚜—ㄱ, 뚜—ㄱ, 후두둑 후두둑’

개초를 그저 못해서 뒤걸 헛간에 묶어서 세워 놓은 짚단과 수수깡 사이에서, 잊어버릴 만큼이나 오랫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똑똑하게 잦은 가락으로 들린다.

바람이 일어 청솔가지로 둘러싼 산울을 우수수우수수 흔들다가, 덧문 창호지에 굵은 모래를 끼얹는 듯이 휘뿌리는 것은 틀림없는 빗소리가 아닌가.

‘오오, 빗소리!’

동혁은덧문을 밀쳤다. 습기를 축축이 머금은 밤바람이 방안으로 휘몰아들자, 자던 얼굴에 방울방울 부딪치는 찬 빗방울의 감촉! 동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심훈, 『상록수』, 범우사, 1983, 54-55면)

비는 제법 장마 때처럼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한다. 동혁은 일종의 심비감을 느끼어 노래라도 한 마디 부르고 싶었다. 십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음성인들 이 빗소리보다 더 반가우랴, 흥년이 들겠다고 쌀금 보릿금이 오르고 초목의 새싹이 지지리 타들어 가도록 온갖 생물이 목말라 하던 대지 위에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그 비를 휘몰고 들어오는 선들바람의 교향악, 그것은 오직 하늘의 처분만 바라고 사는 농민의 귀에라야 각별히 반갑게 들리는 소리다. (심훈, 『상록수』, 범우사, 1935/1983, 55면)

위 내용에서 물은 서정적 대상으로 등장한다. 위와 같은 인물의 경험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감각이 아니라 도시에 살던 소시민 지식인인 동혁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된 상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물은 개인의 감상적 대상으로 드러날 뿐 농민 생활이나 농사 등 사회와의 관련이 약하다.

이무영의 농민소설 「농민」에서 농민은 물에 예민하다. ‘풍증 있는 사람이 비오는 날을 미리 알듯이 그들은 일자무식이라도 생리로 절기를 안다. 물 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해병머리의 물소리인지 여름철의 물소리인지를 용이하하게 구분’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물의 인식과 물에 대한 감각은 구체적인 농민의 생활에 기반하고 있다. 농사에는 물이 매우 필요한 대상이고, 그 물의 쓰임과 필요한 양은 절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농민들은 절기에 따라 물을 인식하는 것이 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작품에서 농민은 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祈雨祭」에서 만 다섯 달 동안 가랑비 한 오리 내리지 않는 가뭄에 환갑노인인 칠보는 우물을 파고 난 뒤 우물에서 나오다, 우물에 다시 떨어져 수장된다.

칠보는 다시 밭을 올려 디디었다. 흙통에서 웅덩이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퐁퐁퐁 들린다.

〈흙물은 퐁퐁퐁 우물물은 흥근……〉

〈저건너 갈미봉〉조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난간을 왼발로 차듯이 하면서 바른발을 땅위에 내어던기 위해서 잡았던 바를 우쭐 잡아당기자, 밧줄이 싱겁게도 스스로 떨어져 버리었다. 힘을 주었던 오른팔이 밧줄을 끌고 한참이나 뒤로 물러났다.⁵⁾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과 목숨을 맞바꾼 위 장면은, 칠보라는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나타낸다. 요컨대 물을 인간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위 작품에서 칠보노인의 죽음은 물을 얻기 위한 희생 제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⁶⁾

4) 이무영, 「농민」(이무영, 『농민』, 일신서적출판사, 1954/1994, 107면).

5) 이무영, 「기우제」(이무영, 『第一課第一章』, 금성출판사, 1981, 200-201면).

6) 비를 요청하기 위한 희생제의는 전체집단을 위해 봉헌된다(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21면). 다만 위 내용에서 희생은

이때 개인의 희생은 농사를 위해, 즉 농민 집단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제의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얼마간의 사회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물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절대적 대상으로 나타나며, 인간이 사회적으로 물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삶에 이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기 때문에, 우물물은 비보다는 우연적인 성격이 약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성격 역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심훈이나 이무영의 작품에서 물의 재현은 사회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고, 그 기능면에서 얼마간은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적이고 개인적으로 물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사회적 연결망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농사와 물의 근대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물의 표상은 그것을 통해 농민의 구체적인 생활의 일부로 재현할 수는 있지만, 물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위 작품들에서 물은 근대적인 사회 권력이라는 인식을 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 풍경과 사회적 매개로서의 물

2.1. 풍경으로서의 물과 농민의 삶

한국근현대소설에서 물은 원초적 자연력을 지닌 풍경으로 제시된다. 농민들에게 물은 매우 커다란 힘을 가진 자연의 일부이다. 그것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농민들의 삶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연으로서의 물은 불확정적이다. 풍경으로 나타나는 물의 불확정성은 그 넘침과

내부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부족함을 예측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불확정성의 대표적 사례가 재난으로서의 물이다.

물은 농사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부족하거나 넘치면 재난이 된다. 물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인간은 물에 적응하며, 거꾸로 물이 인간에게 적응하지는 않는다. 물의 부족과 넘침은 농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주요 계기이다. 근현대 농민의 삶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물의 부족과 넘침은 피폐한 삶의, 혹은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 물의 부족과 넘침이 가져온 재난은 바로 가뭄과 홍수이다.

가뭄이 아니라도 이 고장은 땅이 매말랐다. 연사 좋은 해에도 소출로 계량을 대일 양이면 근검 절약을 해야겠다. 하물며 내년 내려 계속되는 흉년에 있어서라.

남녀 노소가 산으로 들로 나무 뿌리나 나물을 캐러 다녔다. 먹을 수 있는 거면 땅 속에 있건, 땅 위의 거건, 움트는 싹이건 즐거리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침뿌리가 캐어지고 소나무가 꺾질이 벗겨졌다.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뒷방에 시어머니처럼 해소병으로 쿨룩 거리는 남녀 노소가 수도룩했다.

살길을 찾아 이 고장을 떠나는 사람, 거지가 되어 가족이 사망으로 흩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졌다. (안수길, 『北間島 上』, 삼중당, 1967, 13면)

가뭄은 물부족 상태가 길게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뭄에서 물의 존재는 그 영향이 매우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반면, 홍수에서의 물의 넘침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광경과 그 영향은 쉽게 시각적으로 드러난다.⁷⁾ 근현대 소설에 재현된 홍수의 장면을 살펴보자.

박화성은 「홍수전후」(『신가정』 1935. 3)에서 홍수 풍경을 매우 생생하게

7)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 농민소설에서 홍수 풍경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현하고 있다. 홍수로 표현되는 물은 공간적 배경이자 자연력의 은유로 나타난다. 박화성의 홍수에 대한 묘사는 현장에 대한 묘사와 함께 이루어 지는데, 이때 물은 원거리에서부터 포착된다. 하늘과 남과 북을 잇는 기차, 그리고 제방을 터뜨리고 넘쳐흐르는 빗물에 잠기는 여러 지역들과 논밭,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여인네들의 모습, 물에 잠긴 나주 정거장의 모습을 원경(遠景)에서 차츰 근경(近景)으로 이동하며, 생생한 홍수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점점 험악해 가는 검은 하늘은 더욱 악착스럽게 폭우를 내려 쏜다. 하늘도 내려앉을 듯 하고 땅도 폭 꺼질 듯 하게 오직 두려운 빗소리만이 천지에 가득하였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는 평시에 제주와 용기를 자랑하던 급행열차들도 이 위대한 대자연의 무서운 기세와 위압 아래에서는 물 위에 기어가는 작은 벌레에 지나지 못하였다.

종일을 한결같은 위세로 쏟아지던 비는 기어코 남조선 각처에 있는 크고 작은 강물을 불게 하고 개천을 넘치게 하고 수리조합의 제방을 헐고 원뚝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강 연안과 낮은 지대에 잇는 둑리는 물에 잠기고 지붕까지 잠긴 집은 등우리가 떠내려가고 헐어지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물을 피하여 올라가며 목을 놓고 울었다. (박화성, 「홍수전후」, 서정자 편저, 『박화성 문학전집 16』, 푸른사상, 2004, 264-266면)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읍내서 물 구경을 왔던 부인들 중에는 물에 희생된 작은 제물의 흘러가는 뒤를 향하여 손에 들었던 우산을 던지며 소리쳐 우는 이도 있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윤성의 동무들의 젊은 가슴은 훨훨 달아올랐다. 다섯 사람은 사납게 펄펄 솟아오르는 붉은 물결을 눈 흘기며 노를 저어 윤성에게로 향하였다. 노를 젓는 네 팔뚝에는 의분의 힘이 올라 우물 우물 떨렸다. 그러나 거의 가까이 그 곳에 닿으려 하였을 때 급히 쳐내리는 물결에 노는 똑똑 분질러졌다. 노를 잃어버린 배는 금세 전복되려 하였다. (박화성, 「홍수전후」, 서정자 편저, 『박화성 문학전집 16』, 푸른사상, 2004, 274-275면)

위 묘사에서 홍수는 인간의 문명을 덮치고 있는 적군으로, 인간 문명의 상징인 기차는 홍수의 기세 아래 있는 작은 벌레로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묘사에서 홍수는 집과 방축과 원뿔을 무너뜨리고, 집과 시내를 휩쓸어버리는 위력을 가진, 문화이전의, 혹은 문화를 초월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자연력은 인간의 과학문명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다.

홍수로 인해 곡식들과, 가축과 집과 딸을 잃게 되면서, 송서방을 비롯한 윤성이 아버지 등 농민들은 홍수가 농부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재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홍수로 인한 삶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들은 홍수를 계기로 소작쟁의를 주도하는 윤성, 대홍, 유동, 만성 등의 친절을 알게 되고 이들을 신뢰하면서 소작인들의 모임에 합류하게 된다. 홍수라는 재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생활난의 주요 원인인 소작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상호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홍수란 자연력으로서 농민들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호 연대를 통해 풀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작품에서 사람들은 홍수의 피해를 당하고 홍수를 막기위해 물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연대를 하게 된다. 그것은 사회적 행동의 계기로 작용하지만, 물과 관련된 사회 체제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박화성의 「한귀(旱鬼)」에는 오랜 가뭄에 모판이 빨갛게 타오르자,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돼지나 강아지와 식수 경쟁을 하며, 밤에는 샘물을 지키려 파수를 선다. 사람들은 먹는 물이 모자라 변비에 걸리고 강아지가 사람이 먹을 물을 먹으면 그것을 부지깥이로 때려 쫓는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비가 올까하여 목사를 신처럼 받들지만, 그래도 계속 비가 오지 않자 목사를 폭행하며 화풀이한다. 이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과 동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도 물부족으로 인한 재난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농민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게 된다.

박화성의 「고향없는 사람들」이나 안수길의 『북간도』에서는 가뭄 때문에, 한설야의 「홍수」에서는 홍수 때문에 농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한설야의 작품에서 홍수는 추수의 실패를 가져오고 소작료를 낼 수 없게 된 조선의 농민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된다. 조선 농민들의 이주 이후 그곳에는 일본 농민들이 이사 와서 살게 된다. 이 작품에서 홍수는 조선 농민들에게는 이주를 발생시키는 재난이지만 일본 농민에게는 그곳에 와서 살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홍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논의 개발과 맞물린 민족적 이주라는 사회현상을 매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박화성, 안수길, 한설야의 작품에서 물과 관련된 풍경은 농민의 삶과 사회현상을 물을 통해 매개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설에서 물과 농민, 식민지 근대는 밀접한 연결망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물의 표상은 작품의 사회인식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물에 대한 접근은 물을 통해 자연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파노라마적인 힘을 보여주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 사회연속체로서의 물

김정환의 농민소설에 이르면, 물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대한 힘의 표상에서 농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조건이자 경제 조건으로 등장한다. 물은 특히 벼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물의 넘침과 부족에 대해 섬세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다. 물은 벼의 생산력과 농민 생활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가뭄 후에 비가 오자 농민들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몹시 바쁘다. 그러나 충분치 않은 물 때문에 논에 물을 대려는 농민들은 서로 먹살을 잡고 때리고 싸우고 있다.

우르르르, 췌——.

이글이글 달아 있는 폭양 아래 난데 없는 홍수소리다. 물벌레 고기새끼가

죄다 말라져 죽고,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 떼가 장을 벌였던 붓도랑에, 둔덕이 넘게 벌건 황토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빨강개 타저 죽은 곡식이야 인제 와서 물인들 알라마는, 그래도 타다 남은 비와 시들은 두렁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기를 얻은 듯이 우줄우줄 춤을 추는 것 같다. 행길 양 옆을 흘러가는 붓도랑 가에는 흰 옷, 누른 옷, 혹은 검정 치마가 미친 듯이 부산하게 떠들며 오르내린다.

수도 저수지(貯水池)의 물을 터놓은 것이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없이 때를 지어 몰려가서 애원에, 탄원에 두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수원지 울 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달리 돌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T시 수도 출장소에서조차 작년처럼 또 폭동이나 일어날까 두려워서, 저수지 소제도 할 겸 제이(第二) 저수지의 물을 터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까지 저수지의 물로써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 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한층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김정한, 「寺下村」, 『김정한 소설선집—증보판』, 창작과비평사, 1985, 12면)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다. 물 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욱도 아니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 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수캐처럼 쫓아다닌 피로까지 업습해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물을 흐מות이 대인 보광리 사람들은 제 눈 물이 행어 아랫논으로 넘어 흐를세라 돋우어 둔 물꼬와, 논두랑 낮은 짬을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김정한, 「寺下村」, 『김정한 소설선집—증보판』, 창작과비평사, 1985, 14면)

위 작품에서 물은 농민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등장한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삶과 경제를 위해 물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물이기에 농민들 개인들 간에 서로 경쟁할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권력조직과도 갈등을 겪게 된다. 김정한의 소설에서는 물이 자연물일 뿐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권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김정한의 「모래톱이야기」에서 물과 관련된 사회적 매개는 '둑'이다.

「모래톱이야기」에는 조마이섬에 사는 농민들과 유력자 사이의 갈등은 홍수를 맞아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밀려 오는 강물만 맥없이 바라보았다. 어느 산이라도 뒤엎었는지 황토로 물든 물굽이가 강이 차게 밀려내렸다. 웬만한 모래톱이고 갈밭이고 남겨두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뭉개고 삼킬 따름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듯 우르르 하는 강물림 소리는 더욱 무엇을 노리는 것 같이 으르렁댔다.

독이 넘을 정도로 그악스럽게 밀려 내리는 것은 별건 물굽이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들녘들을 휩쓸었는지, 보릿대랑 두엄더미들이 무더기 무더기로 흘러내리는가 하면, 수박이랑, 외, 호박 따위까지 끼리끼리 줄을 지어 떠 내려 왔다. 이상스런 것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강 한 가운데로만 줄을 지어 지나가는 것이었다. (김정환, 「모래톱이야기」, 『김정환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161-162면)

위 작품에서 조마이섬(모래톱)은 오랜 세월 갖은 풍상과 홍수를 겪어오는 동안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땅인데, 일제 때에는 일본사람의 소유로 해방 후에는 국회의원 명의로, 이후에는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의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땅에서 선조 때부터 살아온 농민과 관계없이, 이 땅의 소유주는 뒤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모래톱에 홍수가 쳐, 몰려오는 물굽이가 독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이 독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그곳에 사는 농민들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건우 할아버지가 마을사람들을 설득해서 먼저 무너뜨렸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별 탈이 없었다. 이 와중에서 유력자 쪽의 깡패 같은 사람들이 건우 할아버지를 방해하려 하자 건우할아버지는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놈들의 욕심이 중하냐?’면서 그들 중 한 명을 물 속에 태질하였다. 이 일로 건우 할아버지는 살인죄로 경찰에 수감되고, 결국 조마이섬은 군대가 땅고르기를 하게 이른다.

이 작품에서 물(홍수)은 오랫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과, 그 땅을 소유한 권력자들인 일본인, 국회의원, 군부와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

내는 계기이다. 이 작품에서 물과 독은 물과 농민의 삶, 그리고 사회적 상황과 갈등을 드러내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물과 연관시켜 농민의 일상적 삶을 사회적 권력관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위와 같은 물의 재현 방식은 농민의 구체적인 삶의 풍경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회의식과 연계되어 있다. 안수길, 박화성, 김정한의 농민소설에 등장하는 물과 관련된 풍경들은 구체적인 생활 공간과 함께 나타난다. 안수길과 박화성의 경우, 물의 풍경은 농민의 생활 속에서 포착되며, 물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관조적 시선에 가깝다. 이에 비하여 김정한 농민소설에서 물은 사회적 권력관계를 비판하려는 중요한 연결점을 형성하고 있어, 사회연속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식민적 권력 제도로서의 물의 관리와 통제

3.1. 물과 식민적 공간 구획

조선 후기의 수리체계에서 국공유 수리시설은 제언사가 관할하였지만, 지역의 각 수리시설은 지주와 작인의 질서가 반영되도록 하여 물의 분배 시기, 분배방법의 결정, 수축 등을 담당하였다. 官 주도 아래 설립된 수리시설은 지방 수령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대상이어서 관권의 직접적 예속 아래 운영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향촌사회의 자치운영에 맡겨졌으며, 지주가 점차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물의 관리는 일제의 식민화 과정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지주 중심의 私占 성격이 강화되던 수리와 수세의 형태, 부분적으로 경작자의 의견이 개입되었던 수리 체계는 근대적 기술력과 강력한 통치력에 기반한 식민체제 하의 국가 체제로 점차 수렴된다. ‘식민통치 및 식민 본국의 지원에 힘입은 금융지원 및 노동력 동원은 한국에서 일본인 거대 지주층을 중심으로 한 수리의 운용 형태를

등장시킨 것이다.’⁸⁾

수로의 근대적 관리 기구는 수리조합이다. 수리조합은 수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1907년 수리조합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여 출범하게 된다. 일제는 수리조합을 통해 식민적 근대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水利組合條例’의 제정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대지주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수리사업을 원하는 일본인 대지주들은 수리시설이 불안정한 열등지나 미간지를 헐값에 사들여 이익을 꾀하려는 자들로서 이들에게는 관개수의 확보가 절실한 문제였다. 결국 수리조합조례의 제정은 일본인 대지주들의 개발 욕구와 일제의 안정적인 쌀 증산 의도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인 대지주들이 식민지권력의 보호 하에 수리조합 사업을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⁹⁾

1907년 일제가 수리조합조례를 발표하고 제실제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궁방이 관리하던 대부분의 수리시설과 국·공유수리시설을 국유화한 것이다. 수리권 내부에 존재하던 농민의 제권리를 박탈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수리시설에 대한 제권리를 일원화시켜 부여하였다. 수리조합조례는 기존 수리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양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세납부의무자도 법적으로 지주로 확정하였다. 수리조합은 지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인 대지주들을 위한 기관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작 농민들은 수리시설과 수리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주들이 수리에 대한 제비용을 작인에 전가함으로써, 경작자 농민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부담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¹⁰⁾

위와 같은 이유로 수리의 확산과 정비가 이루어질수록 농민에 대한

8) 이민우, 「19세기 수리시설의 사점과 수세갈등」, 『조선 후기 간척과 수리』, 민속원, 2010 참조.

9) 전재홍, 「쌀 관련 시설의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일제강점기 논산·호남평야 지역의 사진고찰을 통하여」, 한남대학교 박사논문, 2008, 36-37면.

10) 최원규, 「조선후기 수리와 경영 문제」, 『조선 후기 간척과 수리』, 민속원, 2010, 275면.

식민적 지배력 또한 강화되었다. 근대 한국에서 농업용수는 수리조합을 통해 정치하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었는데, 물의 관리와 배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수리의 운용은 식민 체제에 상응하는 수리 형태를 운용하게 된다. 그러한 경향은 벼 농사를 통해 일인을 비롯한 대지주를 위한 식민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기도 했다.

식민지시대 수리시설은 바다-수로-강-산 속에 연결되어 있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배치된 수로들은 거미줄처럼 거대하고 미세한 연결망을 형성하며, 간척된 갯들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설된 저수지와 수로는 쌀 재배의 공간적 배치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리시설은 탄생은 식민지 조선에서 새로운 공간적 구획을 탄생시켰다.

○ **바다: 방조제** : 1927년 가을 서해안 일단에 이렇게 새 지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동경 126.46°와 북위 35.49° 지점을 중심으로 천 팔백 삼십 팔 정보의 바다가 갯들로 변장하게 되었다. 동서로 뻗은 십키로의 제방이 파도와 싸우며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수년 동안 쌓은 독을 조수가 물어뜯고 훤히 버리기를 몇 번하는 동안 간신히 방조제가 구축되었다. (임영춘, 『갯들』, 현암사, 1981, 78면)

○ **산: 저수지** : 실상 이곳 동진농장 간척지의 젓줄은 수리조합이 만든 관개수로다. 갯논에 도도하게 흘러드는 물줄기는 어머니의 젓보다 더 소중한 생명수인 것이다. 그래서 섬진강 물둑이 이곳 간척지와 같은 운명 속에 탄생했다. 섬진강을 막아수 된 운암 저수지 물이 여기까지 수시로 내리도록 되었다. 섬진강 시발은 진안 팔공산으로 여수만에 이르는 장장 228키로의 강이다. 이 강의 상류에서 약 80키로 되는 임실과 정읍 지점에 물둑을 세워 운암호를 만들었다. 이 물이 흘러 이곳 간척지까지 수십 키로나 되는 긴 수로를 거쳐 서해 바다에 이른다. 운암호 제방과 수리공사는 25년 11월에 기공하여 27년 12월에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28년 1월 5일부터 저수를 시작하여 4월 6일 각 농장에 통수가 개시되었다. 이 몽리구역은 김제, 정읍, 부안 삼군에 걸쳐 이만 정보(후일에는 삼만 정보)에 달한다. 이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 김제 읍에 동진 수리조합이 탄생하였다. (임영춘, 『갯들』, 현암사, 1981, 81면)

○ **산 속: 방축** : 이에 분개한 것이었든지 몰라도 저 편은 작년에 김

갑산동 아래편 땅을 사가지고 신동을 일구게 되었다. 원약 그다지 넓지 못한 평전임에 그리 넓은 면적을 사낼 수는 없었지만 방축을 김갑산동보다 훨씬 높게 친 것과 또는 바로 그것이 물길을 가루막는다는 것이 김갑산편으로 보면 몹시 꺼름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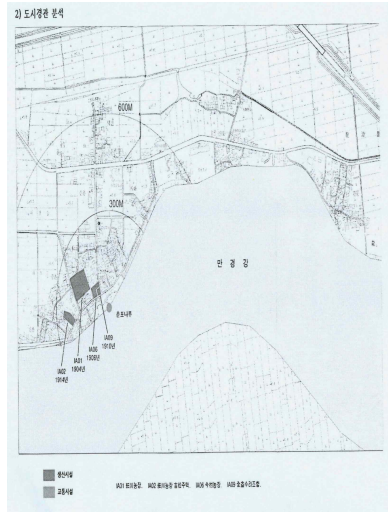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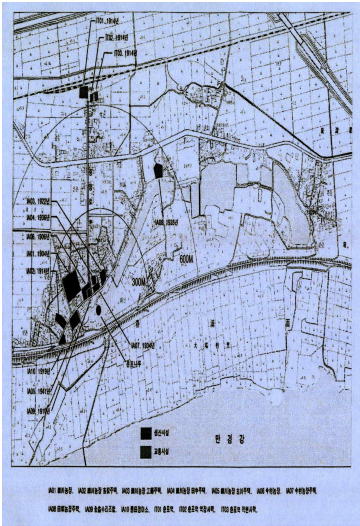
김갑산동에서 산모퉁이 하나만 돌아서 한 십리길만 가면 광포라는 바다가 있어서 그전까지는 그리로 배수가 잘 되었는데 새 동이 아래에 생기며부터 김갑산동은 전연 불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한성야, 「홍수」, 한설야 단편선집 『과도기』, 태학사, 1936/1989, 283면)

○ **강과 평야** : 수로 : 오직 벼! 벼앞에는 아무런희생도 참고 견딜수있었다. 일은 수도 내는것과 한가지로 퇴수의 길을 만드는데 기술을 요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손쉽게 될 수 있었다. 강이구역(一)짜로 꺾인것을 이용하였다. 기억자의 가루긋는것과 내려긋는것을 삼각형의 이변으로하여 그것을 빗그리매어 제삼변을 수도로 하였다. 물은 강에서 나와 조금 판 곳으로 산보하다가 제강으로 도로드러가는격으로 되었다. (안수길, 「벼」,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안수길』, 보고사, 1940/2006, 285면)

위와 같이 수로는 바다 — 평야 — 산에 이르는 공간을 분할시키면서 연결하고 있는데, 수로의 공간적 배치는 식민지 근대의 영향력에 상응한다. 토지는 일반인들의 재산이지만, 쌀농사에 필요한 물이 국가 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국가는 물의 통제를 통해 농민들의 재산의 집중과 분산에 개입할 수 있다. 농토에 있어 수로와 수리의 공간적 분포와 분포의 확대는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식민지 권력의 거대한 감독시스템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일제는 수도작 재배를 위한 수리 통제와 치수를 통해 더욱 정치하고 강력한 농민 통제의 망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농촌과 도시의 공간은 쌀과 물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근대 이후 새로운 물관리 체계는 공간구조를 재편성하게 된다. 아래의 지도들은 수로와 논, 거주지, 쌀 집적장과 도로와 철로, 국도가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¹⁾

11) 전재홍, 「쌀 관련 시설의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일제강점기 논산·



공간구조의 변화는 사람과 재화의 흐름을 변화시켜 새로운 권력구조의 재편성을 가능하게 한다.¹²⁾ 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간의 구획과 효율성은 근대적인 공간의 재배치를 요구한다. 수로의 개설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거주지, 쌀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쌀을 싣는 선적장, 쌀을 실어나르는 도로 등의 건설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거주지와 농지, 편의시설에 관련된 공간의 재배치를 가능하게 된다. 수로는 벼의 재배와 수확, 유통에 수반되는 제반 시설들을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농민소설에는 수리(水利)가 쌀의 생산, 개간, 농민이주, 토지조사, 금융회사, 행정체제 등과 상호영향관계에 놓여 있는

호남평야 지역의 사진교찰을 통하여」, 한남대학교 박사논문, 2008, 36-37면.

12) 일찍이 K.A.비트포겔은 수리통제(水利統制), 즉 치수(治水)의 필요에서 전제군주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와 강력한 통치의 상관성에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Karl A. Wittfogel, 구종서 역, 『동양적 전제주의 — 총체적 권력의 비교연구 *Oriental Despotism —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법문사, 1991.)

사회복합체로 재현되었다.¹³⁾

이러한 물의 사회문화적 의미망은 거주지와 관련된 또다른 의미망과 연결되어 있다. 위 소설들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간척지에는 샘이 없기 때문에, 식수 여과장치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인 농민보다는 일본인 이주 농민을 위한 것들이었다. 한국농민들은 이것은 물의 근대적이거나 문화적인 사용의 편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포의 기준에 민족적 경계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근현대 농민소설에서 물의 표상은 내면적 경험이나 장소 표상, 사회관계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물이 내면적 경험의 일부로 나타나며, 물과 구체적인 공간이나 사회와의 관련이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풍경으로서 제시되는 경우에 물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위력적인 자연물이지만, 그것은 사회구조와 관련된 일련의 실천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이 구체적인 장소와 사회적 관계의 일부로 등장할 때, 물은 농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사회적 관계의 집약적 장으로 등장하게 된다.

3.2. 물의 관리와 식민적 권력의 관계

농민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농민소설에서 물은 농민들의 관리 대상이자 사회적 관리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물은 농민의 삶의 일부인 동시에 사회 체제의 일부이다. 말하자면 물의 관리는 농민집단의 관리이고 사회 구조의 관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물은 농민과 사회적 현실에 유기적으로 연동된 사회적 복합체로서 인식된다. 농민소설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자.

이기영의 『두만강』에는 곶손이가 함경도 산골에서 물레방아를 도입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곶손이는 화전을 논으로 바꾸고 방아를 찧기 위해

13) 윤영옥, 「한국 근대 농민의 문학적 재현과 수리복합체」, 『한국언어문학』 제69집, 한국언어학회, 2009, 299-331면.

물레방아를 만들어 설치한다. 물레방아를 건설한 이유는 농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인데, 물레방아 설치에 땅을 제공하거나, 물자를 대거나, 물레방아의 설치비를 낸 김장의, 윤희현, 허부자는 왜놈들을 등에 업고, 물레방아를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서로 싸우게 된다. 물의 사용은 자연의 변형인 동시에 인간의 사회 권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이후 농사에 필요한 물의 공급과 분배의 문제는 비에 의한 자연적 방법 외에, 물에 의한 공간의 구획과 분할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의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적 경계 설정은 그 자체로 권력에 준한다.

도청의 토목과 기수가 이 고을에도 출장을 나왔다. 그는 군내의 ‘제언’들을 일일이 현지 답사하였다. 조사가 끝나자 제일 먼저 수축하기로 선택된 것이 이 고을에서는 구를 방죽이었다.

제언은 성말 뒫들—— 옥녀봉 줄기의 방사지고개 너머에도 두 곳이나 수축할 것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들은 구를 방죽을 골랐던가? 이 방죽은 새로 파는 거나 다투어 없는,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도 특히 이 방죽을 선택한 것은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 이민들의 논농사를 위하여 수리관개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그밖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구를 앞들은 거의 논이요, 토지가 비옥하다. (이기영, 『두만강 3』, 도서출판 풀빛, 1989, 265-266면)

위 작품에서 수리 시설의 수축은 물의 접근성과 관련된 근대의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의미한다. 위 작품은 물의 접근성과 관련된 사회적 공간의 위치를 구명하면서, 공간과 관련된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비교와 대조 및 차이를 통해 물의 접근성이 바로 식민적 권력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수리시설의 수축은 몽리구역의 면적이나 곡물 수확량의 문제를 떠나서 몽리구역이 일본인을 위한 것이냐 조선인을 위한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식민 권력의 물공급 망은 민

족지적 경계를 통해 공간적 위치와 구획을 결정짓는다.

물의 통제는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인수(引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홍수가 심한 지역에서는 배수(排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설야의 「홍수」와 「부역」에는 방축 공사와 홍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체로 문명에서 뒤떨어진 미개한’ 함경도 동해안에는 함경선 철도와 H 간이역이라는 근대적인 장치가 있다. 이 마을에 농장이 생기면서 논이 개간이 이루어진다. 쌀 시세가 작년의 거진 곱절이 올랐지만, 풍년일수록 지주라는 빚쟁이의 빚수세에 몰려 농민들은 봄부터 풀뿌리 나무껍질의 초석으로 근근히 연명해간다.

논이 개간되면서부터 이웃에서 농민들이 모여들었는데, 논 수확은 인수(引水)와 배수(排水)에 따라 달라진다. 윗동의 김갑산동은 조선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는 곳으로 홍수를 대비해 논 윗부분에 방축을 쌓게 된다. 그 후 김갑산동 아래에 일본인 교장이 새롭게 동을 개간한다. 그런데 아래동은 위에 있는 김갑산동보다 더 높게 방축을 쌓았다. 그래서 전에는 배수가 잘 되었던 김갑산 동은 그 아래 일본인 교장이 개간한 동이 생기면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았다.

홍수를 계기로 방축이 터져 논농사를 망칠까 걱정한 농민들이 방축을 무너뜨려 물을 빼고자 하였으나, 아래동은 더 높게 방축을 쌓았기 때문에 물은 빠지기는커녕 김갑산동의 논으로 흘러넘쳐 벼농사를 망치게 된다. 결국 농민들은 빚에 떠밀려 마을을 떠나고 일본인 교장은 김갑산동까지 소유하게 된다. 이 마을에서 살던 기존의 농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일본인 교장이 아래동에 이어 윗동까지 차지하게 된 것은 순전히 물의 배수 문제 때문이고, 결국 배수를 통한 물의 통제는 교장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조선이보다 더 높게 방축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인수와 배수를 통한 물의 분배 및 통제는 공간의 소유 및 통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민족적 경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의 통제는 수리시설을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금융제도와 연계해 이루어진다. 국가 체제에 의한 물의 분배와 통제는 행정적

이고 경제적인 총체적 국가기구의 협력적 관계 속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수로의 건설과 통제는 식민지 권력관계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회조직과 제도들과 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의 근대적인 수리체제는 벼농사를 위한 물의 이용에 따라 일본인과 친일 조선인 지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식민적 수탈의 표상이었다.

쌀의 수전 경영이 확대되면서 수리는 농업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조정래의 『아리랑』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리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청년부에서는 며칠에 걸쳐 새로운 시위를 계획했다. 그건 수리조합 반대 운동이었다. 수리조합 반대운동은 동척의 소작쟁의와 같은 것과는 그 성격이나 규모가 전혀 달랐다. 소작쟁의들이 각 지주들과 소작인들 사이의 문제이고, 따라서 규모도 작다면 수리조합 반대운동은 대지주들을 제외한 중소지주들과 자작농 그리고 소작인들에 걸치는 모든 농민들의 문제였고, 따라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소작쟁의들은 바로 수리조합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었고, 수리조합 문제를 해결하면 소작쟁의는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조정래, 『아리랑9』, 해냄출판사, 1995, 67면)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은 대대적인 수리사업을 동반하였다. 도처에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뚫어서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막고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막대한 수리비용의 부담을 진 것은 한국 농민들이었고, 수로는 주로 일본인들의 대농장이나 조선의 대지주들의 농토에 유리하게 뚫었다. 때문에, 땅의 소유권도 없는 조선인 소작인들이나 소규모 자작농들은 수리사업비 부담으로 인하여 더욱 더 영세해졌다. 수리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물리 구역은 일본인과 친일 조선인 지주들에게는 일종의 식민체제의 수혜 역할을 하면서, 조선 농촌과 농민들에게는 미세하면서도 총체적인 통제에 기여하였다.

동진수리조합은 왜인들이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리공사의 경제적 지원은 동양척식회사에서 했다. 그러므로 자연 이 수리 구역 농토가 일본인 손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었다. (임영춘, 『갯들』, 현암사, 1981, 82면)

물의 분배와 통제는 농사 공간과 쌀의 수확량을 통제하고, 권력구조와 경제구조, 나아가 사회 계층의 재편성을 가져오게 된다. 물의 분배와 통제 즉 한국 근대 수리 체계의 형성은 한국 농민의 빈곤화와 일본 농민의 부유화를 피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일종의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이민을 통해 일본인을 한국 농촌의 지주로 만들고, 한국 농민은 한국이나 만주의 소작인으로 축출’¹⁴⁾하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제에 의한 물의 통제는 농민들에 대한 총체적인 식민적 지배력의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물의 조절은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농민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문화적 질에도 영향을 주었다. 임영춘의 『갯들』은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인간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작품에서 일본인 후쿠이가 썼다는 책 제목 <조수와 싸워서>는 자연물인 바닷물과 싸워 조절하게 되는 과정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식민지 조선의 지배, 나아가 조선농민의 지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일본인들이 주도한 방조제와 저수지, 수로의 건설은 그들의 미세한 지배망을 공간적으로 표상하는 좌표이기도 했다.

결국 일제 강점하에서 물의 관리와 통제는 근대화화 농민의 삶, 사회경제, 국가 주권의 문제와 복합되어 있다. 방조제로 인한 갯벌의 간척과 그곳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와 수로의 건설, 수로를 통해 만들어진 논(水田)에 벼농사를 짓기 위한 이민촌의 건설, 이곳에 이주한 농민들을 위한 식수여과 장치와 목욕탕의 설치는 식민지 시대 물의 관리와 통제가 당시 한국 농민과, 식민화 및 근대화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14) 조동걸, 『일제하 한국 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79면.

그 당시 물의 관리와 통제는 한국 농민의 삶에 미세하고도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식민지 권력의 지배력과 연동된 것이었다. 거대하고도 미세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수로의 건설은 이른바 ‘제3세계에 대한 침략과 자국 자본의 효율적 수탈을 위한 근대성의 이식’¹⁵⁾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기영의 『두만강』, 조정래의 『아리랑』, 임영춘의 『갯들』은 일제 식민지 체제하에서 물의 관리와 통제가 행정, 경제 체제와 연동된 사회복합체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물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한국 농민들을 어떻게 미세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삶을 피폐화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4. 식민지 시기 물 관리의 사회문화적 의미망

농민소설에서 물의 문학적 재현은 물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관계망과 사회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표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 근현대 농민소설에서 물의 재현이 사회체제의 연속체로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물의 분배 및 통제가 대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관리 체계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고가 전형화된 인식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일제시대 근대 한국 농민의 재현에서 물의 근대적 관리는 한국 근현대 벼농사에 대한 관리와 통제, 나아가 농민사회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수로의 건설은 논에 벼농사를 지을 생명선을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인 수로의 건설과 관리는 물에 대한 식민주체(국가)의 근대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로와 수리의 근대적 관리 시스템은 지정학적 지배의 은유이다. 자작농이 몰락해버린 식민지 조선에서 세금의

15)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모순과 실체」,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6, 249면.

문제는 국가와 소작농 개인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되도록 했기 때문에, 식민 정부는 수세를 매개로 농민 개인과 농토라는 공간에 대한 미세하고도 총체적인 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눈여겨 볼 사실은 한국 근대 농민소설에 나타난 물의 표상은 대부분 벼농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의 미세한 연결망이 주로 농사에 국한되어 있어, 물의 사용에 대한 편향성으로 귀결된다. 한국근현대 농민소설에서 물은 농민 생활의 편의성이나 건강, 위생, 문화적 감수성 보다는 경제적 결정성과 깊은 관련을 지닌 대상으로 등장하며, 쌀의 생산이라는 경제적 효용성에 접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⁶⁾

조정래의 『아리랑』과 임영춘의 『갯들』에는 호남지역의 일본인 이주촌에 들어선 남녀 목욕탕에 대한 언급이 있다. 농업 이민촌에 건설된 일본인을 위한 남녀 목욕탕은 물의 사용에 관한 민족적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목욕탕은 문명적 생활의 표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일본인 거주지에만 존재함으로써, 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의미망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농민의 물은 단지 쌀생산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일본 농민의 물은 쌀생산을 위한 도구와 농민 생활의 문화적 도구로서의 의미를 둘 다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농민소설에서 물의 재현 방식은 인식론적 경계 구분의 틀로 작용하고 있다. 물에 대한 농민의 감각이 서정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띤 경우 농민의 삶은 던져진 자연적 성격에 가깝다면, 물이 사회적 체제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 농민의 삶은 식민적 근대화의 거대한 고리의 일부로 나타난다. 농민소설에서 물의 근대적 사용과 수로, 주거지, 도로, 쌀 관련 시설 등은 거대한 연결망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에 나타난 농민의 삶이란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엔 사회적 리얼리

16) 위와 같은 현상에 의하면, 농민소설에 재현된 물은 생활 문화요소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이것은 식민지 치하의 절대적 빈곤 속에서 문화적으로 척박할 수밖에 없는 당대 사회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티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물이 개인적 감각으로서 드러나는가 아니면 사회적 복합체로 재현되었는가는 작가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의 의미가 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회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의 경우엔 식민지 근대 한국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과 사회적 연결망 속에 나타나고 있다. 물의 조절과 쌀의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는 나아가 물조절과 연관된 사회적 권력 관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소설에서 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농민이 처한 현실을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는가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국문초록>

소설에서 물에 대한 표현은 시대와 사회, 문화, 작가의식에 따라 표상작 용을 달리 하고 있다. 물의 표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코드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민소설에 나타나는 물의 재현은 '표상 시스템'의 산물이며, 물을 매개로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의 산물이다. 농민소설들은 물을 농민의 삶과 관련된 사건들 속에서 포착하여 그 위치를 설정하고 구성하며 재현하고 있는데, 물을 인식하고 표상하는 방식은 물과 관련된 농민을 보는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물이 개인적 감각으로서 드러나는가 아니면 사회적 복합체로 재현되었는가는 농민이 처한 현실을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는가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물의 문학적 재현은 물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관계망과 사회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표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 근현대 농민소설에서 물의 재현이 사회체제의 연속체로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물의 분배 및 통제가 대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관리 체계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고가 전형화된 인식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문학 텍스트에서 수로와 수리의 근대적 관리

시스템은 지정학적 지배의 은유이다. 자작농이 몰락해버린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 정부는 수세를 매개로 농민 개인과 농지라는 공간에 대한 미세하고도 총체적인 통제를 행사했던 것이다. 따라서 물의 재현은 농민의 삶과 식민지 근대의 삶을 전형적이고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어: 물의 재현, 인지 범주, 사회적 관계망, 물의 관리, 식민적 근대화

<참고문헌>

<1차자료>

- 김정한, 『김정한 소설선집—증보판』, 창작과비평사, 1985.
박화성, 「홍수전후」(『신가정』 1935.3)/ 서정자 편저, 『박화성 문학전집 16』, 푸른사상, 2004
안수길, 『北間島 上, 下』, 삼중당, 1967.
이기영, 『두만강 1-5』, 도서출판 풀빛, 1989.
임영춘, 『갯들』, 현암사, 1981.
조정래, 『아리랑9』, 해냄출판사, 1995.

<2차 자료>

- 양선아 외, 『조선 후기 간척과 수리』, 민속원, 2010.
윤영옥, 「한국 근대 농민의 문학적 재현과 수리복합체」, 『한국언어문학』 제69집, 한국언어학회, 2009.
李孝德,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이기우 편역,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 — A Rader』, 한국문화사, 1998.
전재홍, 「쌀 관련 시설의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일제강점기 논산·호남평야 지역의 사진고찰을 통하여」, 한남대학교 박사 논문, 2008.
조동걸, 『일제하 한국 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6.
에드워드 홀, 최효선 역, 『숨겨진 차원』, 한길사, 2002.
Wittfogel, Karl A., 구종서 역, 『동양적 전체주의 —총체적 권력의 비교 연구 Oriental Despotism —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법문사, 1991.

〈Abstract〉

Korean Modern Peasants fic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Water

Yun, Young-ok

In peasant novels the method of representing water operates within cognitive boundaries. In cases in which peasants' feelings in regards to water are lyrical and individualized, peasants' lives are depicted as close to a natural state, whereas in cases in which water appears as one part of the social structure, peasants' lives are depicted as part of a great chain linked with colonial modernization. We can detect that in peasant novels the modern usage of water and waterways, villages, routes, and facilities involving rice appear as a great network. Therefore, in the case of peasants who are depicted as having a "lyrical" relationship with water, the lives of peasants have a quality of idealism, and in the case of peasants depicted as part of the modern social network, peasants' lives reveal the social reality.

Also, whether water appears as an individual feeling or is represented as a social composite is closely related to the author's world view.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meaning of water has the tendency to transcend concrete social time and space, and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Korean farmlands of colonial modernity exist within a social web and within concrete space and time.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 of water, production of rice, and efficiency of distribution is related to social power relations in relation to water regulation. Therefore, we can discern that the

method of representing water in peasant novels depends on whether the author deals with the realities the peasants face on an individual level or a social structural level.

【Key words】 : representation of the water, cognitive boundaries, social web, water regulation, colonial modernization

윤영옥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yunok254@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